

민주 “세월호특별법 개정” 호남 민심 잡기 **국민의당 “가뭄 대책 추경에”**



목포신항 찾은 민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당직자들과 함께 2일 오후 목포 신항을 찾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나서 얘기고 있다.



가뭄 현장 국민의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일 오후 무안군 해제면 금산간척지를 방문해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목포신항 피해가족 만남

도청서 가뭄·우박 피해 논의

5·9장미 대선 이후 원내 지도부를 교체한 더불어민주당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국민의당 신임 지도부가 잇달아 광주·전남 민생 보듬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세월호 수색 작업이 한창인 목포 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뭄·우박 피해를 입은 전남도에서 복구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당도 같은 날 지도부가 전남을 찾아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는 농심(農心)을 보듬는 민생 행보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원석 원내대표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원내대표단 7명 의원과 함께 세월호 수색작업이 펼쳐지는 목포 신항에서 첫 외부일정을 소화했다. 우 원내대표는 미수습자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당

비대위 진도·무안·신안 방문

가뭄 피해 보고 현장 간담회

◇국민의당=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도 이날 호남을 찾았다. 가뭄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지자체장들과 만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이 취임 일주일 만에 비대위원들을 이끌고 전남으로 달려간 배경에는 지난해 추수가 실패 폭락, 올봄 가뭄과 우박 피해 등 팍팍한 민생을 돌본다는 의미와 함께 당의 ‘덧발’인 호남 민심이 흔들리라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13 총선에서 호남의 28개 지역구 중 23석을 석권했지만 5·9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당장 민생을 챙기는 모습으로 어떻게든 더 이상의 민심 이반을 막아야 한다는 게 박 위원장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국민의당

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가뭄 피해 지역인 전남 진도군 둔전저수지, 무안군 금산간척지, 무안군 구일간척지,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를 방문해 가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농업용수 등 모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선제적 가뭄대책을 촉구하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약속했다. 이어 “가뭄피해 대책 예산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 “농업재해대책법상 비재해보험에 6월 9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농가들이 서둘러 가입해 가뭄에 따른 농가소득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민의당에서는 김중로·전진영 비대위원과 김성식(서울 관악갑)·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송기석(광주 서구)·윤영일(전남 해남·완도·진도)·손금주(전남 나주·화순)·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 등이 동행했다.

민주 원내협치담당 부대표 ‘文 복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협치담당 부대표로 김경수 의원을 추가 선임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야당의 소통, 여야 협치를 강화시키기 위한 우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인선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협치 부대표는 기존 이훈 의원까지 2명이 됐다.

김 의원은 “정부와 대통령의 힘만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풀어나갈 수 없다. 국회가 중요하다. 우 원내대표와 이 의원

을 도와 정국을 풀어나가고 상황을 수습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김 의원은 협치부대표로서 당정간 가교 역할을 하며 원내에서 야당과 원활한 소통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 경선 기간 문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활약한 데 이어 대선 선거운동 때는 문 대통령을 24시간 ‘밀착 수행’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챙겼다.

정세균 의장, 北 대표단 남한 방문 추진

국제회의의 참석 요청…15일 결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달 말 개최하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측 대표단 참석을 추진 중이다.

만약 북측 고위급 대표단의 남한 방문이 성사되면 남북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와 러시아 의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오는 26~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초청 대상은 유럽·아시아 41개국 국회 의장단이다.

북측 초청 대상은 최대북 최고인민회의 의장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는 최 의장 일행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면 지난 2014년 10월 초 황병서 군(軍)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 ‘고위급 3인방’ 이후 최고위급 인사의 방남이 된다.

북측 대표단의 참석 여부는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몸 추스르는 국민의당

혁신위원장 김태일·대선 평가위원장 이준한 외부인사 선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혁신위원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를, 대선 평가위원장에 이준한 인천대 교수를 각각 선임하는 등 당 재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인사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를 수장으로 한 혁신위는 기존 당헌·당규의 불합리한 부분을 손보는 것은 물론 당의 정체성과 이데올로기 재정립, 더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당권경쟁 불붙는 한국당

홍준표 귀국…원유철·홍문준 출마 저울질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를 했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4일 귀국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의 당권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한국당 전당대회는 오는 7월3일 개최된다.

홍 전 지사는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건너가 정국 구상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홍 전 지사는 미국에 머무르면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현안에 대한 견해를 직설적으로 밝히는 등 정치적 행보를 계속해왔다. “신보수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당을 새롭게 하겠다”거나 “한국당은 쇠신돼야 산다. 이념적 지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약법무법인 자산]

NPL채권 매입하여 투자 수익에 참여하실 분

- ▶ 총 매입금액 : 11억원
- ▶ 1인 2,000만원 이상
- ▶ 투자금 회수기간 : 6~8개월
- ▶ 근저당설정 조건
 - 채권 물건지는 투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